

6th Together Day
제6회 **세계인의 날**



www.togetherday.kr

ENRICH KOREA WITH YOUR DREAMS!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





- UNHCR 최고대표 방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난민정책에 환영
-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및 난민과 신설 예정
- 난민지원센터 개청 예정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António Guterres,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포르투갈 출생, Instituto Superior Tecnico 졸업
- 1981~1983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의원
- 1995~2002 포르투갈 총리
- 2005년 6월 제10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 2010년 4월 재선(임기 5년)

2013년 5월 15일

UNHCR 최고대표 안토니오 구테레스, 법무부 장관 예방

- 난민협약 60주년 회의(2011년 12월) 이후 난민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성과가 많았다고 감사 표명
-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이 아시아 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중요도 강조
- 법무부와 UNHCR의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 약속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2013년 5월 15일 UNHCR(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안토니오 구테레스(전 포르투갈 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난민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성공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난민심사관 확보와 이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UNHCR은 향후 난민심사관에 대한 교육·연수, 국가정황 정보 제공 등 아낌없는 지원과 난민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의 UNHCR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면서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부터 UNHCR 집행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난민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난민심사관 배치와 9월 개청 예정인 난민지원센터 운영인력 확보 등으로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 및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누적 난민신청자의 수가 5,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한 해 난민신청자의 수가 1,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2월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50년 난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창설한 유엔 전문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26개국 41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음.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는 2001년 설치되었음.

*** 재정착희망난민제도란?**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제3국에 정착시키는 제도로 미국, 호주, 일본 등 24개국에서 운영 중.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드히라 아말리아 Nadhira Amalia 02

경기 안산시 고잔동 • 인도네시아

제가 안산다문화거리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테마 사이트' 기사를 더욱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안산다문화마을은 주말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처럼 특별한 장소를 <공존>에서 많이 소개해주세요.

Saya tinggal di dekat Jalan Multibudaya di Ansan maka saya membaca artikel tentang 'tema situs' dengan lebih menarik. Desa Multibudaya di Ansan adalah tempat yang dimana setiap akhir pekan orang-orang asing dari berbagai Negara berkumpul dan dapat merasakan suasana meriah. Tolonglah sering diperkenalkan tempat seperti ini yang dapat memahami kebudayaan lain dan kesempatan dan informasi untuk dapat berinteraksi di <Gongnzone>

미사 유카리 美咲 ゆかり 03

경기 광주시 송정동 • 일본

우연히 <공존>의 '체험, Korea' 코너를 보고 '인천'이 궁금해졌어요. 인천에는 국제공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차이나타운, 첨단도시 송도 등 볼거리가 많더군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싱싱한 해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소래포구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そうするうちに偶然<共存>の「体験、Korea」コーナーを見て「仁川」が気になりました。仁川には国際空港だけあると思っていましたが、チャイナタウン、先端都市松島など見どころが多いです。今週末には私が好きな新鮮な海産物を現場ですぐに味わうことができる蘇萊浦口に行く計画です。

뤼링쯔 몸순주 04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중국

'파란 눈의 한의사'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의 인터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태권도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았던 오스트리아 청년이 서양인 최초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진진하던지요! 그분이 열정을 쏟고 계신 한의학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을 <공존>을 통해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蓝眼睛的韩医师」在Rainmund Milloy院长采访中感触颇深。因迷恋跆拳道而来到韩国的奥地利青年成为首位西洋中医(韩医师)的故事是如此的令人兴奋! 可以感受到他热衷于韩医学的魅力。希望通过<共存>能够更经常,更多的接触这样风采卓绝的人物。

노송화 Noh Song-hwa 05

경남 창원시 두대동 • 한국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공존>을 봤는데요, 우리학교에도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읽을 거리가 많더군요. 세계가 K-POP으로 하나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추어 외국인 출신 연예인과 만나는 코너가 신설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전해주는 <공존>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I saw the <Gongnzone> in the library, and I saw that there were many necessary information for foreign students in my school to adapt themselves in Korea. Since the K-POP is spreading worldwide, it would be great if there was a corner where we can meet celebrities from foreign countries' origin. I hope for the development of <Gongnzone> and that it will give a positive image of Korea to the foreigners.

COVER STORY

그녀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



봄호 표지 촬영에 시오반(Siobhan, 아일랜드) 씨와 후지시로 토코(Fujishiro Tohko, 일본) 씨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시오반 씨는 서울 용암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사로, 토코 씨는 전문 호텔리어로 한국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인 물론 한국인에게도 도움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입을 모으는 이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멋진 그녀들을 함께 응원합니다.

COMMON INITIATIVES

- 02 **Summit Issue** UNHCR 최고대표, 법무부 장관 예방
- 04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06 **공존의窓** 네덜란드 '큐켄호프 꽃축제'
- 07 **Eitor's Message** 신진 이민정책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SPECIAL THEME

- 08 **Theme Intro** 또 하나의 우리를 발견하다
- 10 **Theme Site**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현장
- 12 **Theme Guide**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6 **Theme Interview** 방송인 브라이언 리 & 피터 남 빈트
- 20 **Theme Review** '한국국제봉사사회' 봉사 현장
- 22 **나의 취업성공기** 호텔리어 후지시로 토코
- 24 **GO! 골목산책** 서울의 숨겨진 보물 '서촌'
- 29 **한국생활가이드** 출생신고 작성 방법과 신고요령
- 30 **Dream 충전소** 다문화가정 2세 양만니 양
- 32 **K-Food 특공대** 유학생 4인방의 족발 맛 체험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민정책포럼 참여자
- 38 **WOW 출입국 탐방**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42 **친절 바이러스** 친절은 '부메랑'처럼 행복으로 돌아온다
- 44 **출입국 News** 1분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46 **출입국 Q&A** 복수국적 취득 & 조직자적 변경 신청
- 47 **Thank you Letter** 미소가 달고 싶은 친구에게



계간 <共Zone> 2013 봄호 통권 제29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3년 5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성가 3로 11번지 뉴코아빌딩 8층 | Tel.02-500-9195 | Fax 02-500-9059 | 홈페이지 www.kis.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테베르파트너스 Tel.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02-462-8980
 ※ 계간 <共Zone>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kis.go.kr)에서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오월. 네덜란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규모의 ‘큐켄호프 (Keukenhof) 꽃축제’가 열립니다. 큐켄호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유럽 전역에 진정 봄이 찾아왔다고 해 ‘유럽의 봄’으로도 불리는 큐켄호프 꽃축제. 한국의 색동저고리 마냥 각양각색의 튜립이 32헥타르에 달하는 대정원을 물들인 ‘봄의 기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이곳 소녀들은 네덜란드 왕족의 상징인 오렌지색으로 리본을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그 유명한 보트 트립과 꽃마차 퍼레이드도 즐기죠. 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여유와 사색,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은 만국공통인가 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독자 여러분께 꽃향기처럼 은은하고 풍성한 정책을 전해 드립니다.

사진 제공 큐켄호프 홈페이지 www.keukenhof.nl

선진 이민정책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 흘러가는 강물이 중요한 에너지인 전기를 만들듯이 국가 간 사람의 이동도 국가사회발전의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 관한 관심이 소홀하면 그들은 마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단순한 손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입국자가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넘어 섰으며, 이 중 외국인이 그 절반에 가까운 2,220만 명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과 인구 5,000만 명을 갖추어 ‘20-50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우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인과 더불어 나아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존>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살이를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Creating an advanced Korea through a progressive immigration policy

- The streams of river unite to create the push for electric energy that sustains the modern world we live in today. Likewise, the movements of people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today's nations and societies alike. Without our diligent interest and concern for foreigners in Korea, foreigners will simply be guests with no great significance other than passersby in this country. In 2012, Korea received more than 50 million visitors for the first time, of which about 22 million were foreigners. The sheer volume is a statement of Korea's status as a global nation. Ranking 7th in the world in per capita income of greater than \$20,000 and with a population of 50 million, Korea is now a member of the '20-50 Club'. KIS will continue its very best efforts to generate innovative and progressive immigration policy to further raise the merit and dignity of this country. KIS will be at the forefront in our vision 'Toward an Open and Harmonious Society'. To achieve, this,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will be established for harmonious coexistence of citizens and foreigners alike,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each individual. Furthermore, foreign talent will be actively recruited to contribute to our economy. As I close, it is my sincerest hope that this magazine will serve as a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to our readers and that our stories here will find an echo in your heart. 🌸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Dong-min JEONG**

외국인 관광객 외에도 국내에는 결혼이민자, 근로자, 투자자, 동포 등 장기간 체류하는 재한외국인 인구가 140여 만 명에 이른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한국사회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재한외국인들이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설계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새내기 결혼이민자부터 매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외국인 방송 전문가, 그리고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국제봉사회 회원들까지. 재한외국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재발견한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한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와 적응을 돕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또 하나의 우리를 발견하다

Re:DISCOVERY OF KOREA

01

THEME SITE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행복 징검다리 서울출입국사무소 '해피스타트' 현장



02

THEME GUIDE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가이드



03

THEME INTERVIEW

방송 전문가 브라이언 리와 피터 남 빈트



04

THEME REVIEW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국제봉사회' 봉사 현장



‘행복한 출발’을 팍팍 밀어드립니다

Korea Dreaming!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외국인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 그것. 환영의 인사와 함께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현장을 찾았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체류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죠?”,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등등 신규 결혼이민자들이 당장 궁금해 하는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곳,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매달 2째주와 4째주 목요일, 대회의실에서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기초 생활 법질서를 포함해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정착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한국사회 안착을 돕는 징검다리 ‘해피스타트’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들 많지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힘찬 박수로 문을 연 서울출입국사무소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오늘의 주인공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렸을까. 출입국 직원의 환영 인사에 이어 플레이된 동영상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한국생활 가이드가 상영된 것. 선배 결혼이민자인 이자스민 씨가 한국에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무부,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남편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겨울,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이클 씨와 결혼하여 이날 교육에 함께 참석한 신윤정 씨는 폭넓게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지원 정책에 놀라워했다.

선배가 들려주는 생활 체험담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설명되는 동영상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 이때 통역 도우미로 나선 이들이 있으니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이다. 결혼 2개월차, 뉴엔 미하이 씨 옆에도 고향 베트남에서 온 선배가 바삭 불

새내기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세요. 둘째로, 자신이 살아 온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지 말고, 한국 문화와 사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듯 한국 사회도 사랑하는 거죠. 엄마가 한국을 사랑해야 아이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국에 등지를 뜬 새내기 여러분,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돌람한드(몽골, 한국생활 10년)



어 교육 내용을 꼼꼼히 풀이해 준다. 동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한국생활 10년차 선배인 몽골 출신 돌람한드 씨가 강사로 나섰다. 그녀는 강연을 위해 몽골의 명절과 축제, 음식 문화의 자료를 검색하고,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도 직접 만들었다며 열정적인 경험담을 술술 풀어냈다.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새내기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오금택 팀장은 “해피스타트는 결혼이민자들이 주인공이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돌아가면서 회원들 출신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고, 민속공연, 합창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수년간 다문화가정 결에서 지원활동을 펼쳐 온 ‘국경없는 친구들’ 정순옥 수녀의 조언도 이어졌다. “서툰 솜씨라도 배우자 나라의 요리를 배워서 맛보여주는 걸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라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한 발 먼저 배려하세요.”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들이 알아야 할 자세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새내기 이민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준비한 축하 합창공연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노랫말이 재미있고, 따뜻해 가슴에 남았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 나 혼자서는 못살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떠나기면 못살아~.’

균형 잡힌 외국인정책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A Brighter Korea through a
Harmonious Immigration Policy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한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와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온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With the vision 'Toward an Open and Harmonious Societ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announced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This plan embodies the upgraded service to aid the foreigners in their life and adjustment in Korea. Here, we will dive into the components of this Plan that will bring us one step closer to a 'competitive Korea'.

결혼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투자자, 동포 등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147만 명에 이른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다문화 공존 시대와 이민정책을 이끌어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In March 2013,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immigrant spouses, study abroad students, workers,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s) reached 1.47million. With this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voices were raised calling for new system and policy. With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now introduced, this Plan will direct Korea's next five years of multicultural cohabitation and immigration policy. The Plan sets out five policy goals—openness, social integration, human rights, public safety, and cooperation and sets out a detailed agenda for systematic materialization.

POLICY GOAL 01 Openness 개방

●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attracting foreign talent and foreigner investment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가와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우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문턱을 낮췄다.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전문분야 종사자에 제한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의 외국인으로,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수이민제'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의 영주권 취득을 적극 돕는다.

외국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부동산투자이

민 제도의 투자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낮춰졌으며, 앞으로 법무부장관 고시한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억 이상(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F-5)이 부여된다. 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대해 관여하는 투자이민협의회도 설치된다. 이와 같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 또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KIS continues its efforts to attract foreign talent and professionals, who woul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economy of Korea. First, the visa issuance process has been simplified. Beginning March 1st of this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enabled the application and self-printing of e-visas online for qualified foreign professionals, no longer requiring visits to the appropriate Korean diplomatic establishment abroad. Those eligible for the following status may apply: E-1 (professorship), E-3 (research), E-4 (technology transfer), and E-5 (professional employment). Applications for e-visa may be filed by the foreigner him/herself or by the domestic inviting party by proxy. Furthermore, the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began on May 1 2013 for foreigners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society, in their process of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The criterion of income tax payment record has been added to the existing evaluation criteria, which would add a maximum of 5 points and thereby benefit the faithful taxpayers in receiving their permanent residence.

For 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through attracting foreign capital, the criteria for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have been eased, beginning May 1, 2013.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will be initiated on May 27, 2013. Specifically regarding the Yeongjong area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he original investment amount of 1.5 billion won has been lowered to 700 million won. From now on, foreigners depositing/ investing the amount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or 500 million won or greater in public business (300 million won for retired immigrants) are deemed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F-5). Also, Immigrant Investment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related works in the eligibility of Immigrant Investor Scheme, standard investment amount, etc. With such investor-oriented measures, a greater number of foreigners are estimated to receive the residential (F-2) and permanent residence (F-5) status enabling economic freedom.

POLICY GOAL 02

Social Integration 통합

다문화 가족과 이민자 자립 돕는 사회 통합

Social integrati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migrant self-reliance

세계 이민정책 흐름에 발맞춰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데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은 외국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다음 국적을 신청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민자의 적응과 자립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많은 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단계별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와도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21만여 명의 결혼이민자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다국어 능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로 잦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결혼중개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배우자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실질적 가족부양능력 등을 확인하고, 인터뷰 심사도 강화하여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취득절차,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입학절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10명 이상인 글로벌 선도학교는 교육지원,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과세된 수수료와 범칙금 등의 수익을 이민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지원책의 합리적인 선별 기준 등을 정리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n line with the world's migration trends, various endeavors are underway to integrate immigrants as members of society and to support immigrants' self-reliance and growth. The introduction of the permanent residency pre-positive principle aims to prepare the immigrants with the basic refinement as members of society, prior to receiving the Korean nationality and settling in Korea.

The Korea Immigrant Integration Programs are designed to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and society that are critical for the adjustment and self-reliance of immigrants. Plans are





underway to execute the programs in different levels of participation and to expand program benefits via systematic links to other affiliated agencies. To aid the job search of approximately 210,000 immigrant

spouses, active policy-making is in progres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employment centers to deliver information on tailored positions, making use of the multilingual abilities of immigrant spouses.

In efforts to prevent fake marriages, screening and monitoring of marriage agencies will be tightened. Meanwhile, visa issuance for immigrant spouses will require checks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spouses and family support capabilities. The bar for interview evaluations will be set higher as well.

To assist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receive public education,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nationality acquisition, prep school enrollment, and regular school enrollment will be made ready. Institutions selected as Globally Leading School (school with 10 or mor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designated to provide a diverse range of programs from general education support to cultural diversity understanding.

As for the KIS, establishment for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is underway. To achieve maximized benefits for Immigrant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standards for beneficiary selection from local governments with independent support measures will be compiled for comparison. The KIS aims to use the profits, legally obtain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rough service charges and fines, for the benefit of immigrants.

POLICY GOAL 03 Human Rights 인권

모두가 존중 받고 보호 받는 환경 조성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very person is respected and protected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사회 학습의 기회를 마련한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 강화는 물론 각 지자체의 이민자 관련 행사·축제 등을 매년 5월 20일 시행되는 '세계인의 날' 행사와 연계, 활성화시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적으로는 출입국사무소의 각종 민원신청서, 발급서 서식을 다국어로 지원하는 한편 미디어 시장의 양방향 다국어 자막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방송 이용 환경도 개선된다.

Various channels are in development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Along with the capacity building i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other immigrant-related events and festivals held locally and regionally will be linked to the yearly 'Together Day' for vitalization and advertisement purposes.

With regard to administrative work, the various civil application forms and issuance forms at the immigration offices will be made available different languages. Additionally, improvements to broadcasting services are in progress to aid the social adjustment of foreigners, such as expanding the bidirectional and multilingual subtitle services in the media market.

POLICY GOAL 04 Public Safety 안전

첨단 시스템 활용한 안전한 사회 확보
Achieving public safety through high-tech system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승객정보 사전처리절차(i-APP)를 확대 실시해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입국 전에 제공받아 국익을 위해할 가능성의 인물인 경우 사전에 탑승을 차단하고, 밀입국 취약 지역인 항구와 포구에 카메라 및 CCTV를 늘리며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집중 단속,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사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With efficient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s, KIS continues its very best efforts in border control. The expanded Interactive Advanced Passenger Processing (i-APP) makes receiving the passenger information (from the airline) possible prior to boarding. Thus, persons deemed possibly harmfu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are prevented from boarding in advance. Increased installations of surveillance cameras and CCTVs are planned at ports and harbors—areas prone to illegal entry and smuggling.

Concentrated enforcement, large-scale enforcement system, and on-call enforcement team will be set up for foreigner-condensed areas. Furthermore, tougher visa evaluations and limits to sojourn extension will be in effect for foreigners who are habitual offenders of social order or are tax delinquent. To prevent malpractice of such foreigners, KIS will carry out periodical programs introducing the basic laws and the legal system of Korea for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on working visits.

POLICY GOAL 05 Cooperation 협력

교류와 협력 지원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exchange and cooperation system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물론 개발도상국 우수 인재의 취업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도국의 공무원, 학생 등에 대한 초청 연수·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이민과 개발' 관련한 범정부적 연구도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 심사 시 통역·녹음·녹화 등 이용자의 입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까지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동포사회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To promote co-prospe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with send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be increased. Invitational training & education programs will assist the civil servants and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HR cultivation. Cross-governmental research on diverse countries will begin on the subjects of immigration and development. To promote refugee policies befitting Korea's national status, detailed action plan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Refugee Seeking Resettlement,' and procedural rights for refugees will be addressed through providing individualized services for refugees, such as translating and voice/image recording services in refugee evaluation. Finally, networks and cooperation with overseas Korean communities will be expanded to consider ways to increase the F-4 eligible persons among the overseas Korean talent. 🌐

제 2 차 기본 계획 정책 목표

정책목표	중심과제
개방	①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②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④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통합	①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②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③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④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권	①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②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③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안전	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②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③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④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협력	①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통과 국제협력 강화 ②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③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전자사증 신청 및 발급 절차





Brian Rhee & Peter Nam Bint



같은 돼지띠고, 띠 동갑인 두 남자는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많다. 1971년 돼지띠 브라이언 리(Brian Rhee)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영국에서 온 1983년 돼지띠 피터 남 빈트(Peter Nam Bint)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여기에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살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EBS 라디오 (FM 104.5MHz)에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브라이언 부모님께서 1965년 미국 오하이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는 여자를 만나면 결혼해야 한다, 밤이면 통행금지라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한국에 대해 오해한 부분도 많았는데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기억이 1965년에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피터 영국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한국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을 자주 방문했고, 한국을 워낙 좋아해서 한국인 교회를 다니고, 한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또 어학연수 왔던 한국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음주문화는 정말 힘들어요

브라이언은 1999년, 피터는 2008년에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옮겼다. 태생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과는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브라이언 제 걸모습은 100% 한국인이지만 생각은 미국식이어서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다니며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요령껏 살고 있습니다.

피터 저와는 반대네요. 전 걸모습은 서양인이지만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자성어 같은 어려운 말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는 편이고, 보수적인 사고는 저와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너무 커서 매우 힘들어요.

브라이언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한국만의 독특한 음주문화입니다. 저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는 것이나 술잔을 돌리는 것, '원 샷'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술자리는 인맥을 쌓고, 사업도 하는 자리라고 하니 술을 못 마시는 저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피터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한국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한국식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의견을 100% 공감합니다. 선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선후배 관계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고요.

한국 사람 상대하기 참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브라이언 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EBS FM '파워 잉글리시(POWER ENGLISH)'를 진행하고 있고, 피터 남 빈트는 EBS FM '잉글리시 고! 고!(ENGLISH GO! GO!)'를 진행하고 있다. 라디오 영어회화 프로그램 진행자인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같은 돼지띠고, 한국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들어본다.

글 서창석 사진 서찬우



브라이언 리 (Brian Rhee)
1971년, 미국

1999년 한국에 와서 영화 <괴물>에선 미국인 의사로, <펜트하우스 코끼리>에선 변호사로 출연한 바 있으며, 성우, 격투기팀 에이전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EBS FM 'POWER ENGLISH' (7:40~8:00am, 10:40~11:00pm) 진행



피터 남 빈트 (Peter Nam Bint)
1983년, 영국

2008년 한국에 와서 PSG(Seoul)에 재직하였으며, 영어강사, 영어서적 집필가, 성우, 리포터, 영어 카피라이터, 영어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EBS FM 'ENGLISH GO! GO!' (6:00~7:00pm) 진행



한국에서는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이방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피터와 브라이언이 느끼는 한국의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

피터 한국인은 정이 많고 따뜻해요. 처음에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이 사람이 내가 밥 먹은 것을 왜 물어보나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말 한마디가 나에 대한 관심이고 따뜻한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브라이언 친구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의리 문화가 있어서 친한 사람을 통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이 좋기는 한데 우리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터 처음에 스포츠에이전트 자격으로 tbs 교통방송에 출연했다가 연줄로 아리랑TV와 EBS에서 일하게 되었고, 성우나 리포터로 활동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는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브라이언 저 역시 영화에도 출연하고, 요즘은 격투기팀 '코리안 탐탐'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더 빨리, 깊게 사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 동창이나 같은 고향이라면 일단 믿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친근한' 브라이언 vs '겸손한' 피터

'파워 잉글리시'를 진행하고 있는 브라이언이 거침없고 뽕 터지는 입담으로 청취자를 사로잡는다면, '잉글리시 고! 고!'를 진행하고 있는 피터는 요일별로 초

한국인은 정이 많고 따뜻해요.
 처음에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이 사람이
 내가 밥 먹은 것을 왜 물어보나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말 한마디가
 나에 대한 관심이고 따뜻한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된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인으로서 이들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브라이언 한 방송사에서 일을 해도 활동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못 만나는 편입니다만 곁에서 본 피터는 한국말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특히 방송을 하면서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은 보기에 안 좋는데 피터는 아주 겸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피터 브라이언은 가식이 없이 청취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방송경력도 저보다 오래된 선배고 옆에서 봐도 다재다능하다는 게 느낌으로 전해져요. 그런 브라이언이 부럽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일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큼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수입도 기록이 심하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피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개편 때는 긴장이 많이 됩니다. 6개월 전에 아들까지 낳았으니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방송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역동성 대단하지만 교육환경은 큰 문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묘수를 더 잘 본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 우리는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도 이들의 눈에는 확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다.

브라이언 한국이 역동적이고, 빠른 시간에 발전을 이룩한 것은 참 대단합니다.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이나믹 코리아' 그 자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준비가 미진해서 제대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했었는데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터 저도 24시간 생동감이 넘치는 한국을 무척 좋아해서 한국에 왔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영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으면 영국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아기를 낳고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한국의 교육방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다이나믹 코리아의 저력이 교육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야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교육환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저 역시 피터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부모는 교육에 무관심해서 문제지만 한국은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브라이언은 방송 일을 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스포츠에이전트 자격증이 있는 피터 역시 한국 축구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돕고 싶다고 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것까지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은 이들 두 사람.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 리 없겠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

**라디오를 켜면
영어 주파수가
잡힌다!**



<Super K-pop>

Everyday at 4~6 PM, Arirang Radio
 (Jeju FM 88.7 Seoguiipo FM 88.1)

Super K-Pop takes you through diverse K-pop genres to provide a comprehensive Korean music experience, from well-known dance and idol stars' music to indie, rock, hip-hop, and jazz. If you want to build your English by listening to K-pop, listening to <Super K-pop>!

<Super K-pop>은 유명 댄스가수와 아이돌 스타의 음악부터 인디, 록, 힙합 및 재즈에 이르기까지 한국 음악의 모든 장르를 소개합니다. K팝을 들으면서 영어 실력도 키우고 싶다면 <Super K-pop> 방송을 들으세요.

<Travel Bug>

Everyday at 9~11 AM, Arirang Radio
 (Jeju FM 88.7 Seoguiipo FM 88.1)

Find out about delicious Korean foods, fun things to do, and the best spots for sightseeing in Korea from Lisa and our daily guests on <Travel Bug>! "Be in the know to enjoy all that Korea has to offer!" Join us on <Travel Bug> every morning to gain information on traveling in Korea and start your day right!

<Travel Bug>의 리사와 게스트로부터 맛있는 한국음식과 즐길 거리, 전망 좋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Travel Bug>와 함께 한국여행 정보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The Steve Hatherly Show>

Everyday at 2~4 PM, tbs eFM(FM 101.3)

Talking about Korea considerable stories and everything with our guests. And we throw out the 20 questions. It's your turn to answer them. Tune in during the second hour for your chance to win.

한국생활의 모든 이야기를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나눕니다. <The Steve Hatherly Show>의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에게 20 개의 질문을 던지면 방송 중인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정답을 맞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눔에 국경이 있나요?”

한국에 와서 받은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한국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퍼주는 외국인 봉사자들이 있다. 비영리 단체 한국국제봉사회다. 봄햇살이 눈부신 사월의 주말, 한 무료 급식소에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식사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는 이들을 만났다.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국제봉사회’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모두를 위한 밥상, 밥 한 끼의 소중함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토마스의 집’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급식을 받기 위해서다. 매주 목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0여 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하루 중 단 한 끼 제공이지만 이 한 끼를 나누기 위해서는 국거리 찬거리 준비, 밥 짓기, 반찬 만들기, 식판 배식에 서빙, 설거지, 부엌 청소 등 뒷정리 일까지 어디 하나 손뼉 들지 않는 곳이 없다. 이때마다 한걸음에 달려와 준다는 ‘한국국제봉사회(이하 봉사회)’, 토마스의 집 봉사자들 중 유일한 외국인 봉사그룹이라고.

“처음에는 반찬 양을 적절하게 덜어주지 못하거나 국을 뜰 때 건더기 없이 국물만 주는 등 실수도 많았는데 빨리 적응하더군요. 여러 외국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라는 말에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럽게 느낄 정도죠. 아주 성실해요. ‘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현장에서의 태도와 자세도 본받을 점이 참 많습니다.”

‘토마스의 집’ 살림을 맡고 있는 박경옥 총무가 그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안 배식이 시작됐다. 두어 종류의 반찬과 밥, 국으로 채워진 조출한 차림이지만 모든 노숙인들은 식판을 깔끔하게 비웠다. 그사이 봉사회원들은 흠을 돌려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고, 식사를 마친 자리 정리는 물론 재빨리 빈 식판을 주방으로 배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분주한 모습. “살면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밥 더 달라시면서 맛있게 드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천만 회원이 퍼뜨리는 나눔 씨앗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김이 넉넉히 말하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은 봉사회가 출범한 시발점이기도 하다. 봉사회는 지난 2011년 12월 24일, 서울 가락시장 노숙자를 위한 급식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과 교수, 원어민 교사, 외교관, 주한 미군 등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하나둘 모이던 것이 현재는 회원 수가



1,162여 명에 이른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언어장벽에 부딪히거나 정보가 부족해 시도조차 못해봤던 외국인들과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중개자가 이들 봉사회다.

현재 봉사회는 서울과 성남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영어 강의,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회화 강의, 노인복지관 방문 등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한강 및 국립공원 청소 등 환경 보호와 동물 보호소 지원 활동 외에도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대신 재능 기부자가 시내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재능 교환 프로그램 등도 계획 중이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노력을 기부함으로써 한국을 잠시 스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제2의 고향’과도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 비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맡았던 시오반(아일랜드) 씨에게 오늘은 어떤 추억일까.

“봉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봉사는 제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봉사회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하고 싶은 한국인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 자기 취향과 시간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참여율이 매우 높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이라고. 봄꽃을 닮은 봉사회 회원들의 싱그러운 미소가 지금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 ☺

한국에서 배운 情, 나누며 살래요 / Pfeifer Drew(미국)

제가 생활하고 있는 용산 미군부대를 오가는 한국인들의 친절함 덕에 한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죠. 벌써 많은 한국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제가 한국에서 받은 배려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서예요.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사회활동을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살 계획입니다.



특기와 도전 내세워

취업문 열었죠

藤代 瞳子
후지시로 토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곁에서 친절함 이미지를 심어주는 호텔리어들. 한국의 숨은 홍보대사라 할 수 있는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일본인이 있다. 후지시로 토코(27)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국땅에서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넘어 수 차례 도전 끝에 비늘구멍을 통과한 그녀.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л의 당당한 신입사원이 된 그녀를 만나 취업 성공기를 들어 보았다.

현재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л의 일본어 카피라이팅을 맡고 있는 후지시로 토코 씨. 호텔 메뉴에서부터 안내, 호텔 소개, 면세점 브랜드, 홈페이지 등 호텔 홍보팀 소속으로 필요한 모든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한 VIP 고객 안내는 물론이고, 일본 현지 홍보활동을 위한 기사 작성도 그녀 몫이다.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신입사원이에요. 더구나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답니다. 배려심이 많은 팀 동료들과 선배들이 친절하게 알려줘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죠."

하지만 인터뷰 중에도 로비에서 길을 잃을 투숙객에게 재빨리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안내하거나, 호텔 내부 전시물이 보일 때마다 가지런히 정돈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에게선 이미 호텔리어다운 세심한 관찰력과 세련된 매너가 물씬 풍겼다.

생애 첫 직장, 호텔리어가 되다

그녀가 입사해 맡은 첫 임무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호텔의 행사 준비였다. 그녀가 속해 있는 PR팀과 마케팅 팀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 결과, 로컬푸드를 테마로 한 조리경연대회에서부터 스페셜 와인행사, 과거 발자취를 기록 사진을 통해 둘러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졌다고.

"선배들이 차린 밥상에 저는 손가락만 얹었다고나 할까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맡은 변역 업무 외에도 호텔리어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된 첫 경험이었어요."

이국땅에서 첫 직장생활에 도전하기까지 고민이 왜 없었을까. 더구나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컸다.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인 나를 채용해 줄까?',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내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나와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등 걱정이 앞섰던 것.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꿈을 위해 도전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다.

목표 분석은 기본, 장점은 특기로 어필

그녀는 처음부터 '호텔리어'를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맞춤식 취업 준비를 해나갔다.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분야는 가장 자신 있었던 한국어.

"2008년 일본 독협대학에서 숙명여대 국문과로 편입해, 한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쓰는 말과 학교에서 배우는 말이 다르고, 호텔에서서만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많아서 익히는 데 많이 힘들었죠."

그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수시로 보는 한편 한국 소설책과 경영 분야의 전문서를 읽으며 어휘력과 작문 실력, 전문성까지 키웠다. 물론 영어회화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학원을 꾸준히 다녔다. 그렇게 6개월을 부지런히 준비한 끝에 한국어자격증 5급을 취득했고, 면접관 앞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를 넘나들며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다고.

이미 취업에 성공했지만 호텔리어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그 뿐이라. 지금도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사교성,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서비스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니깐요. 항상 고객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꼼꼼히 준비하면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서 도움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저 역시, 대학 동기들과 한국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세요." ☺



취업 선배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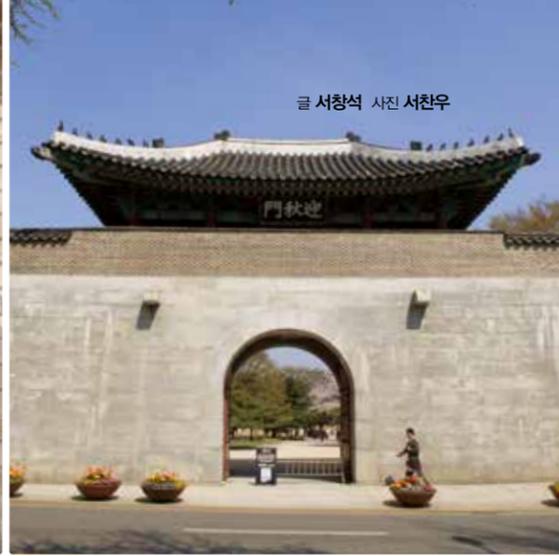
한국 기업이 좋아하는 인재상 달라요! 나라마다 조직문화의 차이가 있기에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꼼꼼한 일 처리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확인한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가훈 등의 소재를 활용해 본인 가정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이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개인적인 질문이 많다! 한국 기업의 면접관들은 지원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주량은 얼마인가?', '가족, 형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사적인 질문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당황하기 쉬운데요,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GO 골목산책 서울 서촌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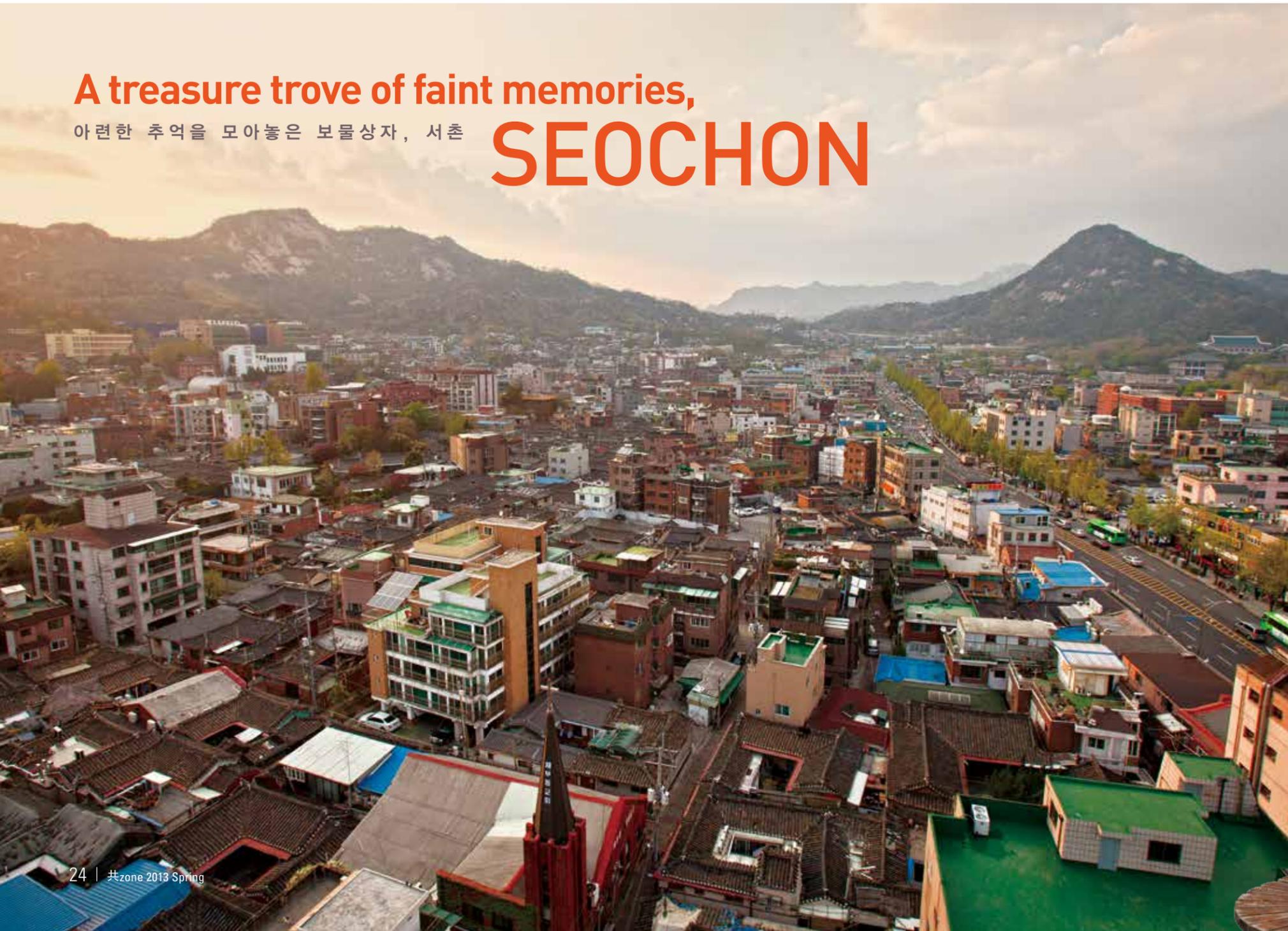
글 서창석 사진 서찬우



A gem does not need be brilliant. Simple, and rustic, even to the point of looking careless, a gem is a gem in an of itself. Seochon, but a few steps away from Gwanghwamun and central Seoul, is such a gem. Enter Seochon, a hidden world a world away from the concrete forest where the warm traditions of old Seoul live on.



A treasure trove of faint memories, 아련한 추억을 모아놓은 보물상자, 서촌 SEOCHON



흐르는 시간을 앞지르지 않는 겸손함마저 느껴지는 서촌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를 중심으로 경복궁 서편에서 인왕산과 북악산 아래까지 이어진 동네다. 인근에는 초·중·등학교 및 배화여자대학이 있어 학생이 많고, 저녁이면 관광서와 대기업이 즐비해 곳곳에 숨은 맛집으로 셀러리맨이 모인다. 또 주말에는 데이트족과 외국인 관광객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서울 골목이다.

Seochon, too modest to overtake time, even, it seems, begins at exit number 2 of Gyeongbokgung Station, Seoul Metro line 3, and stretches along the west side of the Gyeongbokgung palace down to the foothills of Mt. Bukaksan. The neighborhood is crowded with students,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Baehwa Women's University nearby. In the evenings, workers from the many government offices and major corporations located in the surrounding area flood into the hidden eateries that dot the area. The quiet alleys of Seochon are frequented by dating couples and foreign tourists on weekends.

Rediscovering the alleys of Seochon

Those who wish to leave the crowds of the Bukchon Hanok village and Samcheong-dong and discover glimpses of the past turn to Seochon, where the feel of days gone by has been preserved intact. To understand Seochon properly, one needs to look at its history. Seochon, nearby Gyeongbokgung, the center of power in Hanyang, which was the capital of Joseon, was a Jung-in neighborhood where (relatively) humble translators, artists and doctors would live. Unlike Bukchon, the aristocratic neighborhood of the ruling elite, with its tiled roofs, Seochon was a modest little village of those who were worn out by the rigors of getting by day by day.

Being far removed from power didn't mean the lives of the people of Seochon were bad off. They had a knack for having a good time. As seen in the "Inwang Jaesek-do," masterpiece of the painter Gyeomjae Jeongseon, the people of Seochon would gather at the shadows of Mt. Inwangsan, to recite poetry, draw, and enjoy music. Perhaps that energy has survived until modern times; the novelist Lee Sang, Park No-Su, master of oriental painting, and the poet Yun Dong-Ju, all leading



Wall around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and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In Singyodong, the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and the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are located side by side. The walls around the gate into the schools are tile paintings with the dreams and hopes of the blind and deaf students of the schools. The children, full of hope and dreams even in the dark of blindness or the dead silence of deafness, and working hard toward their aspirations, make you feel warm and fuzzy inside.

Along the Stone Wall Path to Cheongwadae

Seochon, chosen by the Jongro-gu Office as one of Seoul's '20 best places to walk,' begins at Gyeongbokgung station, metro line 3. Begin at exit 2 and look around the west side of Jahamun-no road, or walk along the Gyeongbokgung stone wall path from exit 4 in the direction of Cheongwadae. The Gyeongbokgung stone wall path is relatively less crowded and few cars pass by, so visitors can stroll along at a relaxed and leisurely pace. Past Yeongchu-mun, the west gate of Gyeongbokgung through which the palace workers would have entered and exited in times gone by, and toward Cheongwadae, police stand along the path with a watchful eye on visitors, but don't be scared. They're quite polite and gentlemanly. The presence of so many police is what makes Seochon so safe. Once you reach the square in front of Cheongwadae, the picturesque scenery of Mt. Bukaksan and Mt. Inwangsan flood your view. In a corner of the square is the 'Cheongwadae Sarangchae' where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presidency and buy souvenirs. Continuing on from the square to Shinmu-mun, the North Gate of Gyeongbokgung, visitors can look in on, albeit from a distance, the hom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cktracking to Hyoja-dong, the neighborhood in front of Cheongwadae and to the east of Jahamun-no, you will walk past many treasures, including modest galleries, workshops of new, aspiring artists, themed cafes, and rare and used bookstores. Across the street from Yeongchumun is the strangely named 'Boan' Motel (Boan means security in Korean). Although now closed, and used only sometimes for exhibitions, the inconspicuous building catches the eye because it served as the home of numerous Korean artists such as Seo Jeong-Ju and Lee Jung-Seob for months at a time. While the artists are long gone, closing your eyes and speaking with their spirits which still linger may be worth your while.



Frozen in Time, Tracing History

Even within Seochon, the east and west sides are completely different. If the keyword for the east side is ceremony, it's bohemia for the west. Across Jahamun-no and crossing into the west side, the treasure hunt begins in earnest. The west doesn't have much to see in the likes of big attractions. If it's the major attractions you want to talk about to your friends, then you'd best turn back and head east. The trip up the streets of west Seochon is truly a journey back in time; the old and the new coexist in the alleys of Seochon, which are preserved exactly as they were in 18th century maps.

In the old town of Seochon, old traditional Korean houses line the alleys too narrow for any car to move through – and there are the stories of the people. Following the alleys, visitors run into residents hanging the laundry out to dry, and watering the plants they've placed along the walls. Walking down the streets, and with your nose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you meet

the child in yourself. It's a warm happiness, the feeling you get from a faded black and white photo.

If you really need something to post on your Facebook, the birthplace of King Sejong, Pilundae (home of Neo-Confucian scholar Oseong Lee Hang-Bok), Ingok Jeongsa (home of Gyeongjae Jeongseon, Korean landscape painter), home of Park No-Su (Painter), source of the Cheonggyecheon stream, home of Lee Sang, Lee Jung-Seob's home, the boarding house where Yun Dong-Ju lived, Maedong Elementary, Korea's first public elementary school, the Jongro Public Library, and the Suseong-dong stream recently opened to the public, are worth visiting too. The Hanok village in Ogin-dong, and the 'Brother Barber Shop,' where popular Korean movies were shot, and the Yujeong Beauty Parlor, a salon for the influential wives of leading economic and political figures, including Byeon Jung-Seok, wife of the late Jeong Ju Yeong, founder of the Hyundai Group, are also interesting sights.



"Seochon is part of my life"

Rafael, who came to Korea in 2005, is a Seochon resident. We found Rafael gobbling down a helping of 'chili oil topokki,' another Tongin Market specialty. Rafael was an avid fan of the Tongin Market. "I started frequenting the market since I lived nearby, but the warmth of the merchants and the family-like atmosphere have made the market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love Korea, and I love Seochon. I want to settle down here."

— Rafael (40, Spain, Media artist)



Token to fun, the Dosirak Cafe

To experience a variety of simple foods, try the Dosirak (Lunchbox) Cafe at Tongin Market. Buy 500 Won tokens and walk through the stands in the market, choosing whatever food you want to eat. 5,000 Won makes for a splendid buffet meal. The Dosirak Cafe is closed every Monday and the third Sunday of each month, and is open from 11AM to 5PM every day (tokens sold until 4PM).





Tasty treats, have your pick-

Seochon is also home to several famous eateries. For a hearty meal, find your way to the famous samgyetang restaurant, or treat yourself to fresh seafood dishes. The food alley near Gyeongbokgung station is also home to some great cuisine. Since a few years ago, many themed cafes with great-tasting coffee have opened up in Seochon, as have small galleries and workshops. These shop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neighborhood, so stroll along the streets looking in the windows, and sit down to a cup of tea when your legs begin to ache.

Seochon has a warm and cozy ambience that reminds the urbanite of their childhood. Entering the alleys, visitors can slip back in time to revisit memories gone by. But this inner-city treasure island might not be around for long. With development restrictions lifted and people flocking to the area, it may be just a matter of time until the narrow alleys are replaced with new buildings. So, whether you're a resident of Korea or a foreign tourist, stop by Seochon if you get a chance, before the hidden alleys disappear into history for good. ☺



Gaeseong Granny's 50-year-old Soy Sauce Topokki

Walking toward exit 2 of Gyeongbokgung Station from the entrance to Tongin Market, you will see a sign reading 'Sejong Village Food Culture Street' and a small traditional market. Although formerly a market, there are more eateries than stores here now. At the entrance is the original home of the soy sauce topokki. It's not really a building, more an old granny stirring

golden-brown topokki in a frying pan sitting on an old leather with a tent over her head. Seats? One wooden bench that seats two. A refugee who settled here after the January 4th Retreat, the old lady, who is known in the village as Gaeseong Granny, now 97, has been selling legendary soy sauce topokki here for over a half century now.

Friendly Prices at Seochon's Eatery Alleys

The alley leading from Baehwa Women's University to Gyeongbokgung Station is the 'Sejong Village Food Culture Street.' Seonhee's, about midway down the alley, is famous for its friendly prices. Open for over 30 years, prices are fixed at or below 4,000 Won for the young, hungry but short on cash. 'Yeoljeong Gamja,' also found along the alley, serves up classic fried and spicy fresh-cut French fries, popular among the young crowd.



“새 가족이 생겼어요”



BABY

다문화가정의 출생신고 작성 방법과 신고요령

새 가족이 생겼다고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하면 쉬워요! 출생신고 절차 안내

1 step | 구비서류 및 준비물

먼저 출생신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준비물을 챙기세요.

다음과 같이 ▲신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와 도장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한국인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의 기본증명서 1통 등을 준비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종종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직원이 별도로 요청하더라도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2 step | 주민센터 방문

아이의 아버지나 엄마, 가족이 거주 중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세요. ※ 아이의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부모의 신분증은 물론이고 대리인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step | 출생신고서 제출

주민센터와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1장을 작성하세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서명한 출생증명서 1통과 함께 제출하면 끝! ※ 아이가 병원 외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다면 한 명의 보증인을 두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4 step | 호적정정 신청

신고 1주일 후, 주민센터와 구청을 방문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아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이의 이름과 출생년도 등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어로 된 출생신고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scourt.go.kr/minwon)에 접속하세요. '양식모음' 메뉴를 클릭하면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신청서 총 4종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10개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다문화 가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와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을 원하면 한국인 부모 명의의 통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문의해 보세요.

아이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어도 될까요?

아이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 글자가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이 이름을 다섯 글자로 제한하여 등록을 안내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세요. (가족관계등록법 109호) 다만 가족관계부에 기재된 전체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당차고
아무진
스튜어디스가
꿈인
열아홉 소녀,
양만니



글로벌 코리아로의 비행 세계 맡겨 주세요~

스튜어디스를 꿈꾸고 있는 양만니(19, 서울다솜학교 2학년) 양.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의 재혼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시작한 다문화가정 2세이다. 중도 입국 자녀라는 특별한 사연으로 만나게 된 한국은 그녀에게 제2의 고향이란다. 남다른 한국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양만니 양을 만났다.



당차고 아무진 열아홉 소녀, 한국을 품다

171cm의 훤히한 키에 늘씬한 몸매, 여기에 멋지게 선글라스까지 쓰고 눈앞에 나타난 열아홉 소녀! 오늘 스튜어디스로 일일 변신할 그녀는 서울다솜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만니 양이다. 중국인 엄마가 한국인 아빠와 재혼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올해 1월, 한국 국적 취득에 성공했지만 2009년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단다. 한국어가 서툴러 지하철을 잘못 타기도 했고, 밤에 길을 잃어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다.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드는 것도 잠시, 본래 명랑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던 양만니 양은 지역 다문화센터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들은 그녀를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맞았고, 한국어 공부도 도왔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한국어 실력도 키우고, 한국어를 가까이에서 배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레스토랑 내 고객 안내원과 면세점 판매원, 여행 개인 가이드 등 업종은 달랐지만 모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와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라 즐거웠다고. 그들에게 한국의 오랜 역사, 유명 음식점, 아름다운 경치와 한복을 소개하면서 어느새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루는 제가 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김치를 평생 먹다니 이해가 가지 않아’라면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깐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국에서 김치를 먹기 시작한 지가 1,000년이나 되었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겨울이 긴 한국에서 과일과 채소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란 점과 함께 한국에서 김치를 먹는 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 말을 찬찬히 듣던 외국인들이 모두 고개 숙여 사과하더군요. 어느새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 모습에서 나도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준 편지 한 통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즈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개교를 앞둔 서울다솜학교의 입학안내하는 내용이였다. 그녀와 같은 중도 입국 자녀들에게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란 쉽지 않았던지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다. 더구나 틈날 때 마다 남이섬, 설악산 등 유명 여행지를 거쳐, 혼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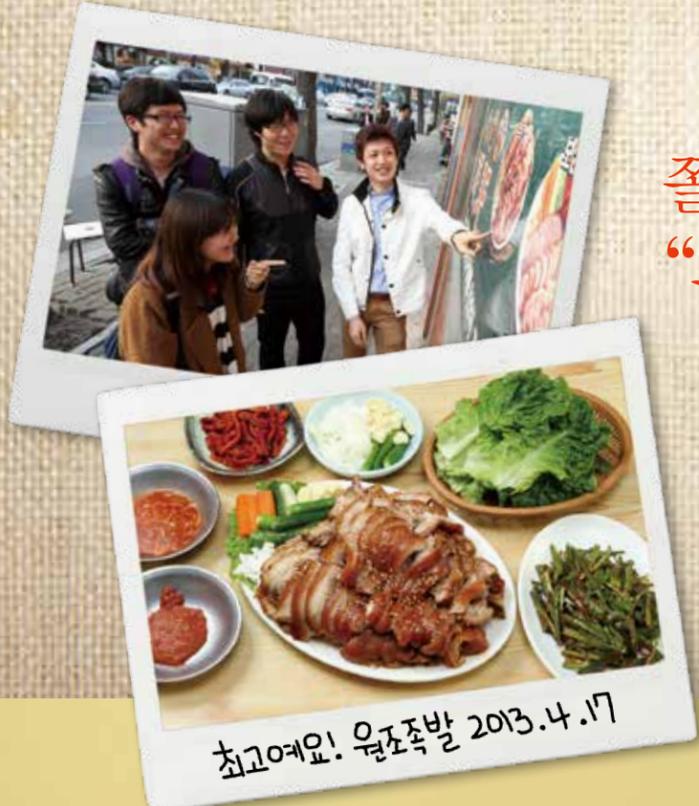
4박5일 제주도 배낭여행을 다녀올 정도 여행을 좋아하던 그녀. ‘호텔관광과’란 단어에 가슴이 설레 바로 입학 결정을 했다. “호텔관광과의 특성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진지하게 꿈과 장래를 고민하는 동급생들과 함께여서 더 좋고요. 학업과 동시에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양만니 양은 지난해 ‘제5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다문화·사회통합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글솜씨가 뛰어나다. 재능 많은 열아홉이 꾸는 꿈이 어찌 하나일 수 있을까. 그녀는 최근 스튜어디스라는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 “항공사로 현장학습을 갔을 때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스튜어디스의 모습에 반했어요. 근무환경도 좋았고요. 오늘처럼 멋진 스튜어디스 유니폼을 매일 입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과 전통을 알리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끝으로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밝히며 활짝 웃는 양만니 양. 부드럽고 환한 미소 속에 한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그녀의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어느새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 모습에서
나도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쫄깃쫄깃 탱탱푸드 “족발 제 점수는요~”

꼬들꼬들한 족발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야식이다. 젤라틴이 많이 들어 있는 족발은 맛도 좋고 피부미용에도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족발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족발은 어떤 맛일까? 원조 족발집이 모여 있기로 소문난 장충동 골목을 찾은 최건(중국, 22), 주행관(대만, 21), 강위(중국, 20), 곽우송(중국, 21) 유학생 4인방의 평가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왼쪽에서부터 곽우송, 최건, 강위, 주행관 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유학생 동기. 이국땅에서 먹거리가 풍성할 리 없지만 평소 간간하고 예민한 미각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잘 찾아내기로 소문난 4인방이다. 한국에 온 시기와 나이도 비슷해 금세 친구가 된 이들이 오늘은 서울 장충동 골목에 출동했다. 족발을 처음 맛보는 외국인들을 위해 족발의 맛을 솔직히 평가해주기로 나선 것. 한국에서 14개월째 생활 중인 최건 학생은 학교 앞 족발집을 지나다가 산더미 같이 쌓인 족발과 한약냄새가 향수를 자극해 먹어본 경험이 있다.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족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적이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제 입맛에 딱 맞더군요.” 한국에 온 지 1년째인 주행관 학생 취미는 ‘한국 맛집 탐방’. 수업이 없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블로그에 업데이트 된 맛집 정보를 검색해 찾아다닌다고. “족발 맛집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대만식 족발은 한국과 달리 고기를 통째로 내놓는데 한국식 족발은 먹기 좋게 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 주니 좋군요. 족발도 삼겹살처럼 상추나 깻잎에 싸먹는다는 것도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1년째 한국살이 중인 강위와 곽우송 학생 역시 족발에 대해서 거부감은 전혀 없다고. “한국 족발의 원조 골목이라는 장충동에서 족발을 맛볼 생각을 하니 기대가 큼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표로 냉정하게 족발 맛을 알려주겠다는 이들. 과연 한국의 대표 야식 족발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



한국 전통음식! 족발은?

족발은 돼지의 발 부분 살을 익혀 기름을 뺀 음식이다. 족발에는 간장, 마늘, 생강, 설탕, 후추, 소주 등 다양한 재료들을 넣는데, 그 외에 넣는 독특한 재료와 조리 순서에 따라 냄새도 달고 더 맛깔 나는 족발을 만들 수 있어 집집마다 그 맛과 비결이 다르다. 족발에는 젤라틴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또한 납·수은 등의 중금속 중독에 걸렸을 때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 족발을 갖은 양념과 함께 알맞게 조린 후, 뼈를 발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새우젓을 곁들여 먹으면 좋다.

족발 맛집거리 서울 장충동 족발골목
서울 공덕동 공덕시장
부산 부평동 족발골목(족발냉채)



최건 • 한국생활 14개월(중국, 22세) 별점 ★★★★★
같은 돼지고기인데 삼겹살과 족발은 정말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껍질은 쫄깃쫄깃한데 안에 있는 살코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상반되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재밌어요. 삼겹살만큼은 아니지만 맛도 좋고요. 고기와 함께 나온 무말랭이 같은 채소가 고기의 느끼함을 덜어주고, 입 안에서 다양한 풍미를 주어 마음에 듭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니 영양도 챙길 수 있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주행관 • 한국생활 1년(대만, 21세) 별점 ★★★★★
족발에서 약간 한약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괜찮지만 다른 외국인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우젓과 쌈장 소스를 찍어 먹으니 새콤달콤해서 좋아요. 족발에는 천연 콜라겐이 들어 있다니 앞으로 피부미용을 위해서라도 자주 먹려고요. 족발을 처음 봤을 때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맛은 놓치기 아깝네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곽우송 • 한국생활 1년(중국, 21세) 별점 ★★★★★
저는 살코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족발의 껍질 부분은 약간 먹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살코기 부분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돼지족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놀라워요. 겉보기에는 기름진 것 같지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함께 나오는 부침개와 반찬도 맛있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 때는 늘 얼른한 감자탕만 먹었는데 이제는 족발집을 찾아 다녀야겠어요.

확 달라진 한국의 이민정책 한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 이민정책 관련 행정관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이민통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민정책포럼. 본 행사 참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이민 정책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을 만나 한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DENMARK

안네 루이즈 라르버그
Anne Louise Laurberg



이전에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을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What stood out among the works and operation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에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처음입니다. 한국은 현대적이며 아름다운 나라이며, 한국의 자연·건축물 및 문화를 보며 다양한 색깔을 지닌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경관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조 불비는 서울이 놀라울 정도로 매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교통 체증이나 혼잡함이 적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This was my first visit to Korea – and my second to Asia (I have been in Vietnam once before). I found Korea to be very beautiful, very modern and also diverse both in terms of nature, architecture and culture. The nature (Jeju) was very beautiful, and Seoul strikes me as a very modern and very busy city, but nevertheless at the same time very clean (no litter on the streets etc.) and with a smoothly run traffic (without traffic jam or chaos – completely different from e.g. Hanoi and New York).

본국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으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ould you describe the work you are currently handling at your office, and the methods through which you carry out your work?

현재 덴마크 사회통합부의 이민통합과의 팀장 및 법률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덴마크 송환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 업무를 간단히 나열하자면 법률 초안 작성, 법률 상담, 송환 업무 관리, 덴마크 난민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업무입니다.

유럽 연합의 실무그룹의 일원으로 덴마크 담당 연락관-NCPI(National Contact Point of Integration) 업무를 맡고 있으며,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 (IGC)-이주정책·망명·난민에 대한 정부간 대화의 실무그룹에서도 덴마크 담당 연락관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정부가 수립한 이민통합 T/F팀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립된 이 T/F팀은 이민통합의 모범적인 관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덴마크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덴마크 정부에 제시합니다.

As Head of Section/ legal adviser I am responsible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to the Danish Repatriation Act, incl. legal drafting, legal counseling, management of pools to initiate and support repatriation projects and corporation with the Danish Refugee Council, municipaliti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urthermore, I function as Danish NCPI (National Contact Point of Integration) in an EU Working Group, and as the Danish representative and contact person to IGC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 Integration Working Group.

Finally, I currently function as the Secretariat for the Government's Task Force on Integration – an independent Task Force, which has mandate to look into best practices on integration and to report to the Government on methods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strengthen integration in Denmark.

한국의 이민정책 서비스 중 가장 눈 여겨 본 것이 있으신지요?

What stood out among the works and operation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보안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진 한국의 출입국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세계 각국의 출입국 및 이민통합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이러한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The combination of efficiency and high-level security and high-tech/modern immigration system combined with the friendliness stroke me as very unique for Korea. Furthermore, I am impressed by how KIS constantly seeks new information about immigration and integration from other countries in order to learn more and to exchange new information and ideas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이민정책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are the essential qualities that an immigration leader should possess, in your opinion?

이민정책 전문가는 항상 세계 주요국가와 국제사회의 이민법 및 추세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국의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조언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의 통합정책이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을 밀

접히 연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교육 이민자의 비중이 큰 아프리카 이민자를 위한 통합 접근방식은 고학력 국외 거주자를 위한 통합정책 신설 등 전적으로 다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과 방안은 이민추세와 조화되어 만들어져야 합니다.

An immigration leader should in my opinion of course always be up to dat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migrations law and 'trends' in order for him/her to so provide the best counseling possible to the Government in question so the Government can react swiftly to changes in the immigration pattern. Furthermor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closely linked, so that the integration measures fit the immigrants in the country. The integration of uneducated and possibly traumatized refugees from Africa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integration of highly educated expats, and the means and measures of integration therefore needs to meet go hand in hand with the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tion pattern.

세계 이민정책의 흐름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문이 있을까요?

Observing the world's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what is changing at the fastest pace?

이민정책의 전문가로 종사하고 있지 않아, 제가 이 질문을 답변하기에 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As I don't on a daily basis work with immigration policy but integration policy I don't think that I am qualified to answer this question.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Would you like to offer any comments to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번 이민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본부의 국제협력팀과 T/F팀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입국공무원으로써 제가 참가한 여러 회의 중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된 우수한 회의였습니다.

I wish to send my warmest regards to the entire conference team; you guys truly did a magnificent job during the entire week. I know how much work you must have put into this during the last months and how stressing it can be – but you can congratulate yourselves: I was without doubt the best organized and outstanding conference I have ever attended – and probably ever will attend.

이전에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을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What was your impression of Korea through this visit?

네, 제게는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꼈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이러한 매력과 함께, 매우 청결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Yes, this was my first visit. I really enjoyed Korea.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The food is delicious. The country is (as far as I've seen) clean and safe.

본국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으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ould you describe the work you are currently handling at your office, and the methods through which you carry out your work?

현재 네덜란드 INS(이민국적서비스) 기획전략부의 상임고문으로, 부처 장관님, 이민정책본부, 브뤼셀에 위치한 상주대표단, INS의 본부장 및 여러 이민정책 실무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제 업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망명자에 대한 유럽연합 지시사항 ② 유럽망명지원사무소 관련업무
- ③ 유럽 망명정책 업무 (예)출입국서비스 대표자회의-GIDSC, 국제 위기그룹-ICG ④ 국제 이주자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업무 (난민신분 및 보완적 보호자) ⑤ (협력) 지정국가 망명자에 대한 조치 수립

I'm a Senior advisor at the policy and strategy section I advice among others the Minister, the department Migration Policy,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in Brussels, the Head of the INS and also the caseworkers with relation to migration policy. At our directorate I'm responsible among others for



카즈 무이스 Kaj Muijs



NETHERLANDS

the following subjects:

- ① European Asylum Directives ② EASO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③ European asylum (policy) subjects in general (a.o. GDISC, ICG) ④ National Policy with relation to international protection (refugee status and subsidiary protection) ⑤ (coordinating) asylum policy towards asylumseekers from specific countries

한국의 이민정책 서비스 중 가장 눈 여겨 본 것이 있으신지요?

What stood out among the works and operation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체계성, 지식 및 업무 처리능력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The very good organization and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employees.

이민정책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are the essential qualities that an immigration leader should possess, in your opinion?

이민정책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많지만,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며, 정치적인 흐름에 대한 민감도와 빠른 내부 분위기 파악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ood contact with the employee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ensitivity.

세계 이민정책의 흐름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문이 있을까요?

Observing the world's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what is changing at the fastest pace?

세계 여러 목적의 이주 중 노동이주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럽 연합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The (benefits of) Labour migration will be more and more important for, at least, the EU.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Would you like to offer any comments to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끝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를 방문해 이민정책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Just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conference and your country.☺



38
WOW 출입국 탐방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42
친절 바이러스
친절은 '부메랑'처럼...

2013 SPRING
Immigration Now



44
출입국 News
1분기 소식



46
출입국 Q&A

스스로 혁신의 주인공이 된 그들, '명품 행정'을 구현하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해·속초출장소와 더불어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과 경기도 가평군의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성출장소는 남북 간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협산준령이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적잖은 고충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춘천사무소의 근무만족도와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춘천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켜켜이 쌓여가는 아름다운 전통, 정(情)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면서 체감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도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직원들 중에는 춘천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춘천사무소를 방문해보니 “떠나기 싫다”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관리과 이진수 과장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 역시 부산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왔습니다만 막상 춘천에서 근무한 뒤로는 나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사무소는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진정으로 위해주는 정이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행복한 직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사무소 직원들끼리는 ‘올 때는 오기 싫어 울고, 갈 때면 가기 싫어 우는 곳이 춘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기 전에는 춘천사무소의 장점을 몰랐던 것이지요.”

이진수 과장의 말마따나 춘천사무소 직원들은 동료애로 똘똘 뭉쳐있었다. 그 구심점에 있는 송기만 소장은 직원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케이크를 마련하여 함께 축하해주고, 수시로 티타임을 만들어 업무뿐만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있다. 직원들끼리는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고, 청사에 구비된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돈독한 정을 다지고 있다.

체류계 김효정 서기보는 “아빠처럼 자상하고 따뜻한 정승화 계장님을 비롯해 모든 선배님들이 인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후배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춘천이 타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배는 사랑으로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믿음과 존경으로 선배를 따르면서 춘천사무소의 따뜻한 전통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다.



2013년 원주 이동출입국 운영계획

◆ 안내 사항 ◆

- 운영장소 : 원주서청 종합민원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취급업무 : 재류기간연장 등 (17세 미만 아동 동반 시)

▶ 2013년도 운영일자 (총 2회 특이일)

일별	운영일차	일별	운영일차
1월	10일, 14일, 17일	1월	11일, 25일
2월	11일, 20일	2월	09일, 22일
3월	14일, 26일	3월	12일, 26일
4월	11일, 23일	4월	10일, 24일
5월	09일, 27일	5월	14일, 28일
6월	11일, 27일	6월	12일, 26일

문의사항 안내

출입국 종합민원상담 국번없이 1345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033-269-3215

법무부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일인다역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들의 집합체

춘천사무소의 등록외국인은 지난 2월 현재 8,505명이고, 민원처리 건수는 2,900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다. 언뜻 한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출장소 곳곳을 포함하여 직원 정원이 37명에 불과한 춘천사무소 관할구역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과 경기도 가평군이고, 고성출장소는 고성터미널의 남북 간 출·입국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관할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반면 적은 숫자의 직원들이 전국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나 수행하는 공통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과의 카리스마'로 통하는 성기홍 계장은 "관리과와 출장소에서 인원 지원을 받아야 단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산이 많아 이동시간이 길고, 지난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차량의 타이어에 체인을 감고 사고위험을 감수하며 출동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단속업무의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단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인권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은근히 춘천사무소의 단합된 힘을 자랑한다.

춘천사무소의 또 다른 어려움이려면 단속활동에 필요한 인원도 부족하지만 보호외국인 계호업무 전담인력이 정식으로 확보되지 않아 수용자가 있을 때면 행정직원들이 계호업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것도 춘천사무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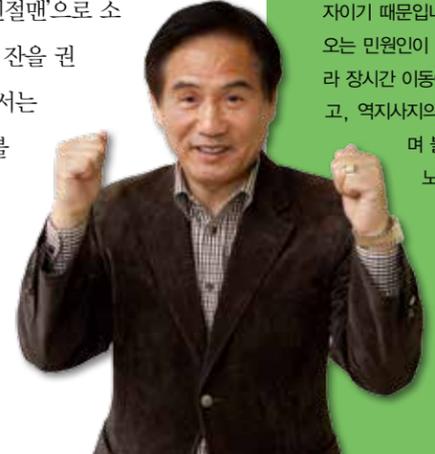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춘천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같은 기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춘천사무소를 거치는 동안 일인다역을 하다 보니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진수 관리과장은 "춘천 직원들은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직원들은 일도 잘하지만 친절할 민원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1등 직원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통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

춘천사무소 직원들의 높은 근무만족도는 '고객지향 경영'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민원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서무계 김재호 계장은 "직원의 행복이 민원인의 행복이 되고, 민원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고객지향 경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민원인들 사이에 '친절맨'으로 소문난 국제계 최태호 계장은 "민원인들에게 따듯한 차 한 잔을 권하면서 다정하게 다가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니 민원불만이 없다"면서 "원거리의 민원인들이 힘들게 우리 사무소를 방문한 만큼 직원들도 그 심정을 헤아려 더욱 따듯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며 '역지사지'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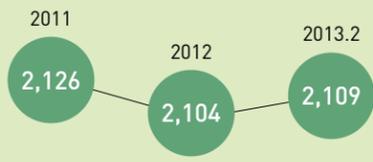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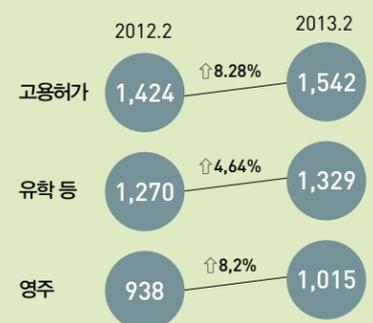


무공해도시 춘천에 부임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저는 직원들에게 민원인은 물론 동료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고객인 민원인은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이고, 동료 직원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춘천사무소는 원거리에서 힘들게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은데 저희 직원들은 성실한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동에 지친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더욱 낮추고,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포근한 쉼터 같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민원인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송기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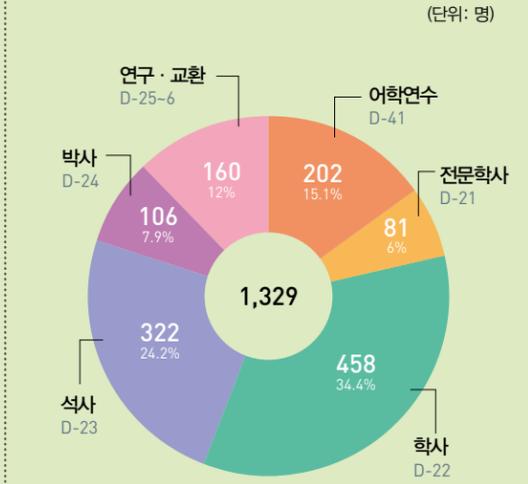
결혼이민자 증감 추이



등록 외국인 자격별 현황



외국인 유학생 현황



친절은 '부메랑'처럼 행복으로 돌아온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일어나는 사이 '큰 고민'을 해결한 민원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들려온다. 마음의 서비스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착한 맨'을 소개한다.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한 시간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고 조사과 직원들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한 벨기에인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채로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더군요. 벨기에대사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뒤 보호사실 상황과 본국 송환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출국 전까지 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을 연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그 분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구요. 얼마 후 대사관으로부터 그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지요. 우리소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한남 반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객만족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이라니 좀 쑥스럽네요. 지난 3월, 한국에서 식당업을 하는 우즈베키스탄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지점 확장을 준비하던 중에 까다로운 사업자등록 절차를 잘 몰라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제 업무와 무관한 일이었지만 함께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 민원인 대신 설명도 도왔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친절이란,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기형 반장, 세종로출장소

친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지난 1월, 군미필자인 민원인이 친구와 함께 해외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해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출국이 어려운 상태였죠. 저희가 나서서 병무청에 연락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입국심사장 앞 긴 줄에서 다시 만났을 땐 사촌동생이라도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친절히 처리해 줘 고맙다며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친절은 결국 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이 되겠습니다.

이남규 계장,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기다리는 분 입장을 생각하며 업무 처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화는 쉴 틈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의 출입국 기록이나 인적사항 등 '기관 조회'를 의뢰하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죠. 법원, 경찰, 학교, 지방자치체 등등 많게는 하루 수십 건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화신을 기다리는 분 입장을 생각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죠.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테니 걱정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수경 반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힘든 유학 경험 떠올리며 '스마일 서비스'

이전 근무지였던 군산출장소는 외국인 유학생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적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유학생들을 살뜰히 챙겨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해외 유학 생활을 보냈기에 국내 유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구요. 유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내 법과 제도를 안내할 때도 귀찮다거나 굳은 표정 대신 웃는 얼굴로 맞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유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니 마음이 더욱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항상 웃는 얼굴과 친절한 서비스로 친절 한국의 이미지를 지켜가겠습니다.

원아정 반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새 사령탑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취임



지난 4월 10일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취임했다.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출입국과 외국인정책 분야는 검찰, 교정 업무와 함께 법무부의 주요 세 축이며, 글로벌 시대의 최전선을 지키는 첨병”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모두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선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자부심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 바람 불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낮춰

법무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 또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투자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존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평창 알펜시아의 투자기준 금액은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다. 현재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인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 실적은 2013년 3월 말 기준 총 383건, 2,497억 원에 달한다.

재외공관 방문 필요 없어
해외 우수인재 비자 절차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해외 전문분야 종사자에 제한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

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의 외국인으로,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사증 신청하려면 우선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가입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와 초청기업 확인 절차만 밟으면 전자사증 확인서를 출력해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비자 심사진행 상황을 휴넷코리아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 신청, 비자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수이민제’ 개선안 5월 1일 시행
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법무부는 사회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수이민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점수이민제는 기존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 전공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이수자도 해당 평가항목 배점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 기준 933명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거주자격(F-2)을 취득했다.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난민법령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3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난민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있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난민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동안의 제정 경과를 설명한 후 “이번 난민법령 제정을 계기로 난민행정 단계 발전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UNHCR,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논의를 하였으며, 150명의 방청객이 공청회장을 꽉 채우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6월 말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해 공항 환승 시 72시간 체류 허용
환승관광외국인 대상 무사증입국 본격 시행



법무부는 인천·김해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 등 인접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을 허가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무사증입국프로그램 시행 첫날인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 시행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관광 데스크나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 이용하면 된다.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 중으로 2013년 4월 30일 기준 8,216명이 이용했다.

K.I.S.Information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안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 글로벌 센터 빌딩 5층 (종각역 6번출구 앞)
전화 02-2075-4122
처리업무 기업투자 자격(D-8) 연장,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사실증명, 단기비자(C-3) 연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이전
주소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 97-2
전화 054-247-5363
처리업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 등 일반 체류업무, 조사, 재외동포 거소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국적, 사증, 난민신청 제외)

New Immigration Office Locations
New location for Seoul Immigration Office branch (originally at Seoul City Hall)

Address Fl 5 Global Center Bldg, 38 Jong-ro, Jongro-gu, Seoul
Tel. 02-2075-4122
Handled Service D-8 (corporate investment) eligibility extension, Certification of Fact for Immigration, Certification of Fact for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ion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Certificatio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registration number for foreigner's real estate, C-3 (temporary visit) visa extension.

New location for Daegu Immigration Office-Pohang Branch Office

Address 97-2 San, Changpo-dong, Buk-gu, Pohang
Tel. 054-247-5363
Handled Servic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change to status of stay,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foreigner registration and general visa affairs, investigation, 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for overseas Koreans, and issuance of various certificates (excluding nationality, visa, and refugee application).

Q&A

Q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1일 병역을 필하였습니다. 두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도 우리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개의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다면 병역의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3년 10월 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역을 필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I am currently a dual citizenship hol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SA, and I completed my military service in Korea as of October 1, 2011. If I can no longer maintain my dual citizenship and have to choose one of the two, what process does this require?

A With the revised Nationality Act, a dual citizen does not have to give up his foreign citizenship to maintain Korean citizenship, if he vows not to exercise the foreign nationality. This must be done within two years from the completion of military service. The specific process is to first submit the written oath for the discontinued exercise of foreign nationality to the Minister of Justice, along with the 'Nationality Choice Report' form. Thus, you have until Oct 1, 2013 to fulfill this process. However, a person who received birthright citizenship from a birth tourist mother is not eligible for this process, even if he fulfilled the military service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Q 한국 대학교에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졸업이 얼마남지 않아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학자격(D-2) 체류자로서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구직자격(D-10)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학사이상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 수료(예정)자로서 평균학점이 3.0 미만인 경우는 지도교수 또는 총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인 경우 평균학점이 3.0 이상이 되거나 전공분야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3.5x4.5cm 크기 컬러 사진 1장과 수수료, 학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구직활동 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I am currently a student studying abroad in Korea. I am looking for ways to find a job in Korea following graduation. Could you tell me the ways to maintain my stay in Korea for employment, without departing to my country following graduation?

A Request for change to D-10 (job seeking visa) may be done if the applicant: 1) currently possesses a D-2 (study abroad) visa and 2) has received (or is on track to receive) a degree from a vocational college or higher, or has completed research at an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of domestic employment. However, if the applicant's academic GPA (B.A. degree or higher) from the domestic institution is 3.0 or below, an official recommendation from the academic advisor or dean is required. If graduating from a vocational college, the applicant shall have an academic GPA of 3.0 or higher, or shall have acquired a national license in the field of study. A completed application packet requires: passport and foreign registration card, single copy of color photo (3.5x4.5), application fee, certificate of graduation and transcript, and a completed 'Plans for Employment-Seeking Activities' form.



따뜻한 미소가 담고 싶은 내 친구, 하산(Hassan Abid)에게

하산, 안녕?

오늘은 하산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띄워볼게.

쾌활한 지금의 모습과 달리 난 미국 유학생할 중에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주위 이웃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그 익은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봉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 무렵, 파키스탄에서 온 하산을 만나게 되었어. 퇴근 후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

달려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하산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의 내 다짐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어.

국적의 벽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에 헌신하는 하산을 만난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내 주변에는

여전히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앞으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응원해줘!

언제나 좋은 친구로 남아 주어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힘내고,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마살라

먹으러 가자!

- 하산의 봉사 벗, 진선주(서울시자원봉사센터)

